

일본 최첨단 IT기업 수장이 밝힌 콘텐츠 창작기법과 차별화 전략



콘텐츠의 비밀

가와카미 노부오 지음

21세기는 콘텐츠의 시대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방송, 책자, 스마트폰이 전달하는 수많은 콘텐츠에 노출되고 그것을 소비한다. 그뿐 아니라 '콘텐츠 산업' '문화 콘텐츠' 같은 상업적 측면의 콘텐츠의 중요성에 대해 수시로 들곤 한다.

사실 콘텐츠는 현실의 모방이며 시뮬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콘텐츠에는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소설, 만화, 게임 등 다양한 장르가 있다. 그 가운데 콘텐츠 기획과 창작기법, 차별화 전략은 작품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들이다.

일본의 최첨단 IT기업의 대표이사이자 콘텐츠 제작 전문가인 가와카미 노부오가 펴낸 '콘텐츠의 비밀'은 진정한 창작이란 무엇이며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가를 담고 있다.

저자는 2006년부터 웹서비스 '니코니코 동화(니코동)'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에는 회원 수만 5000만 명이 넘는 일

본 최대 동영상 사이트다. 또한 저자는 2011년 스튜디오 지브리에 수습 프로듀서로 들어가 작품 기획 및 제작에 대한 것을 몸으로 익혔다.

책에는 작품이 만들어진 과정, 작업하며 관계 맺은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매개로 작품의 숨은 이야기가 수록돼 있다. 그렇다면 저자는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을까? '콘텐츠의 정보량' 측면에서 애니메이션을 예로 든다. 아이들이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림이 단순해서인데, 그것은 정보량이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의 애니메이션은 갈수록 정보량이 많아지고 있다. 어른들도 애니메이션을 즐기 수 있게 됐다(물론 어린이들은 애니메이션을 어렵게 느끼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보량이 많은 편이 싫증나지도 않고 인기도 얻을 수 있어 정보량 조절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 책에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창의적인 생각과 표현을 이끌어내는 법, 비서 보이는 콘텐츠 만드는 법, 대중의 공감을 얻는 법, 창작 아이디어 내는 법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저자는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을 줄 만한 콘텐츠의 비밀은 무엇인지도 들여다본다.

〈출판사〉·1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백제 의자왕릉은 왜 텅 비어 있을까?

왕릉 역사 기행

손종흠 지음



무덤은 죽은 이의 시신이나 유골을 안장하는 공간이다. 시신이 묻힌 묘라는 외형적 상징을 넘어 하늘과 땅, 인간과 신이라는 다양한 의미가 깃들여 있다.

일반적인 무덤을 이루는 봉분은 둥글지만 땅 속의 공간은 네모난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둥근 모양의 윗부분은 하늘-사람-이승과 연결되고, 네모난 모양의 아랫부분은 땅-신-저승과 연결되어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즉 무덤은 각기 다른 두 세상과 두 존재를 연결한다는 의미가 투

영돼 있다.

그 가운데 한 나라를 통치했던 왕의 무덤은 일반인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왕의 생과 사가 한(恨)이라는 고통의 감정과 연계될 때는 후세에 미치는 영향력은 만만치 않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현재로 '소환'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왕의 무덤을 흥미로운 이야기로 풀어낸 책이 출간됐다. 방송통신대 국어국문과 손종흠 교수가 펴낸 '왕릉 역사 기행'은 가야의 수로왕릉부터 조선조 광해묘까지 다루는 왕릉 기행서다. 저자는 고전문학 속에 등장하는 역사적 장소를 직접 방문해 그곳에 얽힌 신화와 전설, 역사 자료를 30년 넘게 축적해왔다.

책에는 모두 18개의 왕릉 이야기가 실려 있다. 나라로는 가야, 백제, 신라, 후백제, 고려, 조선 등 6개 왕조에 이르고 기간으로는 무려 1500년간의 우리 역사를 담고 있다. 왕릉이 북쪽에 있어 갈 수 없는 고구려 왕릉과 대다수 고려 왕릉을 제외한 18개 무덤은 저마다 예사롭지 않은 사연을 지녔다. 이 모든 사연과 이야기는 신화, 전

설, 민담, 역사, 건축, 미술, 복식 등 당대의 모든 문화와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한마디로 왕릉은 모든 문화 현상들이 녹아 있는 종합 문화 콘텐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야의 건국시조 김수로왕이 잠든 수로왕릉은 경남 김해에 있다. 왕릉이 자리한 곳은 '바다를 향하는 거북이 머리 앞부분'에 해당한다. 거북이 머리에 '구지봉(龜旨峰)'에서 났으므로, 죽을 때도 거북이 머리에 잠든 셈이다. 강력한 해상국가 가야를 건설한 왕에게 어울리는 탄생과 죽음일 수도 있겠다 해석이 가능하다.

신라 초대 왕 박혁거세의 왕릉은 다섯 개의 무덤으로 나뉘어 있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오릉(五陵)의 조성 배경은 다음과 같다. 혁거세가 죽어 하늘로 올라간 뒤 유해 다섯 개로 나뉘어져 떨어졌다. 백성들이 유해를 합해 장사를 지내려 하자 난데없이 뱀이 나타나 휘방을 놓았다. 여쩔 수 없이 다섯 개의 묘를 써 각각 장사를 지냈고, 오릉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의자왕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삶을 마감한 군주 가운데 한명이다. 현재 부여군에 있는 무덤은 실

제 시신을 모신 능이 아니라, 지난 2000년 그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조성된 것이다. 의자왕은 방탕한데다 폭군으로 알려져 있지만 '삼국사기'에는 용감하고 결단성 있는 군주였다는 평가가 있다(역사적 평가는 해석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다). 나당연합군에 패한 뒤 당나라로 끌려간 의자왕은 돌아오지 못했다. 지금까지 그의 무덤 존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실정이다.

조선의 28명 군주 가운데 단종에 못지않은 비극적 운명을 겪은 이가 광해다. 아버지 선조가 승하하면서 보위에 올랐지만, 인조반정으로 군(君)으로 강등된 후 왕으로 복권되지 못했다. 광해는 친형 임해군과 이복동생 영창군을 죽게 하고 계모인 인목대비를 서궁에 유폐시킴으로써 천륜을 버렸다. 지탄을 받았다(임란 극복에 나름의 역할을 했지만 광해는 당쟁의 소용돌이를 피해갈 수 없었다). 그의 묘는 크기도 작은 데다 흙과 잔디로만 조성돼 있다. 게다가 가파른 산등성에 위치하고 변변한 안내판도 없다.

〈앨피·1만6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경주시 탐동에 있는 신라 최초의 왕 박혁거세의 다섯 개의 능묘 오릉. 〈앨피 제공〉

정의의 위협하는 것은 두려움과 분노



윌터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

브라이언 스티븐슨 지음

TED(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는 전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영감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강연 프로그램이다. TED 강연 역사상 가장 긴 기립박수를 받은 인물이자 2015년 '정의의 추구하는 인물'로 '타임'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뽑힌 변호사 브라이언 스티븐슨이 쓴 문제작 '윌터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 출간됐다.

브라이언 스티븐슨은 벨스 만델라와 소설 '앵무새 죽이기'의 정의로운 변호사 애티커스 핀치에 비교되는 인물이다. 약자들의 인권과 사법 정의를 위해 일해 온 30여 년의 이력 때문이다. 그가 펴낸 '윌터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자신이 맡았던 형사 사건과 의뢰인들의 실화가 생생하게 반영된 회고록이다.

책에는 백인 여성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사형수가 된 흑인 윌터 맥밀런의 사건, 암마를 폭행하는 동거남을 총살하고 사형 선고 위기에 처한 14세 소년의 사건 등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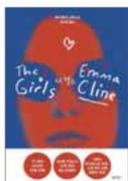
또한 편견으로 약자들을 가혹하게 처벌하는 경찰, 검사, 판사들의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처사와 여기에 그들을 구제하려는 브라이언 스티븐슨의 헌신적인 변호가 대립돼 한편의 긴장감 넘치는 법정 드라마를 선사한다.

저자는 안타까운 사연을 지닌 의뢰인들의 사건을 통해 불공정한 사법정의를 고발하고 개혁 방안들을 고민한다. 또한 정의를 위협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두려움과 분노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누그러뜨릴 자비라는 사실도 전한다.

〈열린책들·1만7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외롭고 황폐한 한 소녀의 청춘 그린 성장소설



더 걸스

에마 클라인 지음

출간 전부터 엄청난 화제를 모으며 뉴욕타임스 12주 연속 베스트셀러와 전 세계 34개국 판권 판매를 기록한 '더 걸스(The Girls)'. 소설은 2014년 파리 리뷰 플러터 상을 수상한 에마 클라인의 데뷔작으로 1969년 찰스 맨슨과 그를 추종하던 소녀들이 저지른 끔찍한 사건을 모티브로 한다.

중년여성 이비는 우연히 십 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 자신의 청소년 시절을 회상한다. 1969년 남부 캘리포니아, 폭력과 약물 그리고 반전운동이 열병처럼 번지던 시기 열네 살 소녀 이비는 공원에서 히피 소녀 무리를 목격한다. 부모의 이혼으로 촉발된 외로움과 분노, 혼란스러운 감정에 힘들여하던 이비에게 그들의 모습은 낯선 풍경으로 다가온다.

"그해 여름, 나는 열네 살이었고 수전은 열아홉이었다. 나는 그녀의 모든 것이 부러웠다" 작가는 외롭고 황폐한 소녀의 내면을 통해 한편의 성장소설을 형상화한다. 〈아르테·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제철 토속 음식·전통 지키는 맛 장인들의 이야기



열두 달 계절 밥상 여행

손현주 지음

음식 이야기가 한기득이다. 유명 블로거들이 소개하는 간편일품적인 맛집도, 방송에 등장해 소란스러운 음식집도 아닌, 시골에서 역적스럽게 뒷밭을 고집하거나 수십 년 대대로 손끝 맛을 이어오는 토속 밥상들이다.

제철 별미를 지역별로 맛보는 맛있는 여행기 '열두 달 계절 밥상 여행'은 여행

작가이자 음식 칼럼니스트 손현주가 오랫동안 지역의 맛을 지켜온 맛 장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제주도와 울릉도부터 우리나라의 마지막 오지 비수구미 마을까지 지역의 제철 밥상에는 소박한 인심과 따뜻한 밥상, 우리나라 제철 산지의 음식, 전통을 지켜나가는 장인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알고 가면 여행이 더욱 깊어진다.

단순히 맛있어서 맛집이 아니라 주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집요하게 파고들어 그 안에 담긴 내밀한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친절하게 전한다.

〈생각정거장·1만6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2016 Gunsan-Seochon Geumgang Migratory Bird Travel
2016 군산-서천 금강철새여행

2016 군산-서천 금강철새여행

11.18[금]~20[일] [3일간] 군산금강철새조망대 및 금강습지생태공원
서천조류생태전시관 일원

주최: 군산시, 서천군 | 주관: 군산세계철새추적위원회, 서천철새여행행사추진위원회 | 후원: 환경부,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